

결과 해석 및 인사이트 도출

※ 특성 중요도 순서로 해석을 진행했다.

1. 수강 학점

- **분석**: 가장 많은 학회원들이 수강한 18학점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18학점 이상을 듣는 학회원들이 그렇지 않은 학회원들보다 ‘상점 \geq 별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높은 학점을 수강하는 학회원들이 상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회원들이 많음을 시사한다.
- **인사이트**: 수강 학점이 많은 학회원들이 학업과 학회 활동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희망 직무

- **분석**: IT와 관련된 직무와 그 외의 직무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데이터, 인공지능 전문가 및 개발자 등을 희망하는 학회원들이 그 외 직무를 희망하는 학회원들보다 ‘상점 \geq 별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IT 관련 직무를 희망하는 학회원들이 상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 **인사이트**: 학회원들의 희망 직무에 맞는 학회 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상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 직무와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프로젝트 등)

3. 하루 공부 가능 시간

- **분석**: 하루 공부 가능 시간을 1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1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회원들이 1시간보다 적게 공부하는 학회원들보다 ‘상점 \geq 별점’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하루동안 공부할 시간이 많은 학회원들이 학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하루에 2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학회원들의 ‘상점 \geq 별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적정 시간이 2시간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 **인사이트**: 공부 시간이 많은 학회원들에게 자율학습 세션이나 온라인 활동 등의 상점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학회 활동을 마련할 수 있다.

4. 조별활동 참여 의향 여부

- **분석**: 조별활동 참여 의향이 있는 학회원들이 그렇지 않은 학회원들보다 ‘상점 >= 별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상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인사이트**: 조별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조별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학회원들의 상점을 늘릴 수 있다. 조별활동에 대해 학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5. 현재 직업

- **분석**: 대학생인 학회원들이 다른 직장이 있는 학회원들보다 ‘상점 >= 별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 신분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상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인사이트**: 직업별로 학회 활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6. 나머지 특성들(전공, 뉴스레터 구독 여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여부)

- **분석**: 이 특성들에서는 ‘상점 >= 별점’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내지 못해 인사이트를 도출하지 못했다.

∴ **종합**: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회원들이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학점, 희망 직무 등 주요 요인에 맞춘 학회 활동을 기획하고, 학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